

사회

자살 임종장 협박 당했다

‘함바’ 유상봉 “손 안 써주면 다 폭로할 것”

임상규 총장 동생 주장 “사람 소개해 준 건 돈과 무관”

지난 13일 자살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함바베리’ 사건 핵심 브로커인 유상봉(65·보석)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인의 친동생인 승규(54)씨는 지난 14일 민소가 마련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유씨의 협박이 고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5년부터 (형님을) 알고 지난 유씨가 함바사업을 하면서 고인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다”며 “이는 고인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소개해준 것이지 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규씨는 “유씨가 함바 비리로 구속된 뒤 형님에게 ‘돈을 빌려달라’ ‘손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가 형님이 거부하자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소개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사법당국에 폭로하겠다’, ‘너와 나의 인간관계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식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유씨에게 소개해준 지인들이 특별히 죄가 없는데 사법당국에 명단이 알려져 소환조사 받을 것을 고인이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인이 유씨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인 관련 계좌가 있다”며 임 총장의 결백을 주장한 뒤 “나도 유씨에게 한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장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내가 마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승규씨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진 때문인지 13일의 발언 외에 임 총장과 유상봉씨 간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함구로 일관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은 지난 1월28일 5000만원의 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임 총장을 지난 3일 참고인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을 뿐 이후 추가 소환은 없었고 소환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은 지난 1월28일 5000만원의 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임 총장을 지난 3일 참고인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을 뿐 이후 추가 소환은 없었고 소환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임 총장은 “아들과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줄 일이 생겨서 총 1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 송금했는데 중앙부산지축은행은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검찰도 충분히 납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 100여명이 14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풍속마을에서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종식 서구청장 소유 무허가 건물 철거령

북구청, 내달 중순까지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 무허가 건물 소유·임대’(광주일보 6월 13일 6면)와 관련, 광주시 북구는 14일 김청장이 소유한 건물 상당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북구가 이날 김 청장이 소유한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번지 1199㎡

(363평)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60평(198.3㎡)짜리 벽돌건물과 90평(297.5㎡)짜리 철골 구조물은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북구는 또 합법적으로 지어진 380.15㎡(115평) 크기의 직석 벽돌 건물 중 일부가 무허가로 증축된 사실도 적발했다.

북구는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북구는 다음달 중순

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김 청장은 아들 대지와 건물 대부분을 1978년부터 지난해 사이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60평짜리 무허가 벽돌건물과 90평짜리 무신고 철골 구조물이 포함된 건물을 각각 A종합기계 사무실·B상사 작업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36) 김종식



동급생 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영장

고려대 의대생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은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튿날 아침까지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A씨를 찍었다가 사색한 사진은 일부 복원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술에 약물을 타거나 추행을 넘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화순 심마니 판매금 일부 기부

○화순의 한 야산에서 야생 산삼 120뿌리를 캔 심마니(광주일보 6월 8일 6면)가 판매금의 일부를 희귀종 환자에게 기부해 칭송.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심마니 서모(41)씨가 산삼 자선경매에 산삼 7뿌리를 내와 낙찰금의 절반인 212만 7750원을 다발성 근육염을 앓고 있는 한모(59)씨에게 전액달라며 화순군에 기부.

○서씨는 최근 화순의 한 야산에서 산양삼 재배지로 적합하지를 확인하다가 산삼 120뿌리를 발견했으며 행운에 감사하는 의미로 지난 6일 야생산삼 7뿌리를 옥션 1000원 경매에 내와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을 희귀종을 앓고있는 환자에게 기부하겠다고 약속.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고향 위해 그토록 뛰어 다녔는데...”

임총장 빈소 조문객 줄이어

임상규 총장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장례식장은 전국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수백개의 조화로 가득 메워진 가운데 이틀째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3일 오전 한병숙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직전 순천대 총장을 지낸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다녀갔다.

지역인사들도 중앙부처 고위직을 지낸 후 1년여동안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다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문객들은 임 총장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두 달 때마디 고

향 구석구석을 찾아 지역발전 방법을 찾는 등 누구보다도 애郷심이 뛰어났다는 생전 고인의 모습을 회고했다.

순천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교직원과 학생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임 총장을 기리며 헌화, 분향했다.

/중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황제 처럼 ...

구속 금감원 검사역, 보해저축銀 카드로 면세점 쇼핑·마사지까지

주택구입비로 2억원 받기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의 비리행태가 ‘가관’이다. 은행에서 주택구입비·생활비·유혹비를 모두 조달한 것으로 조사돼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 정도로 여겼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14일 구속 기소된 이모(55)씨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원 내 고고 선배와 보해저축은행 박종한 전 대표를 통해 오문철(구속 기소) 대표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2006년 5월부터 부국장급 검사역을 맡아 호남 지역 저축은행을

감독했으며 두차례 보해저축은행 검사팀장으로 목포 현지 출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저축은행 감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9월 오 대표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받았다.

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는 2009년 5월까지 한차례에 70만~1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씨는 2008년 6월에 보해저축은행 현지 출장 당시 오 대표로부터 직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더 받았다. 이씨는 이 카드를 쇼핑

및 유혹용으로 1400여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신용카드 이용 내역에는 서울 강남 지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등장했으며 식당, 태국마사지, 호프집 등의 소액결제도 다수 포함됐다.

이씨는 2009년 2월 말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두번째 부문 검사를 앞두고 오 대표에게 “집을 사야 하는데 2억원이 부족하다”며 금품을 요구했고 오 대표는 2억원을 줬다.

이씨는 1급으로 퇴직해 자산운용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지만 구속 기소됨으로써 서민의 자금으로 호의호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피의자 인권보호” VS “상습범 처리 걱정”

광주경찰 ‘유치장 관리’ 수사과에서 경무과 이관 반응

광주경찰이 경찰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사과에서 하던 유치장 관리·유치장 환경 개선·피의자 호송 등 서부·북부경찰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3년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려 했지만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각 경찰서 경무과에서는 엄격한 입·출감 절차 등 부서 간 상호견제로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유치인 인권보호 증진 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수사과 직원들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경찰은 지난 7일 ‘유치장관리 이관 팀’을 꾸린 뒤 수사과에서 하던 유치인 관리·유치장 환경 개선·피의자 호송 등 서부·북부경찰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3년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려 했지만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각 경찰서 경무과에서는 엄격한 입·출감 절차 등 부서 간 상호견제로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유치인 인권보호 증진 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수사과 직원들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게임머니 유통 37억 채권 조직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4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이모(42)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36)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7월경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빌딩 2개 층을 임대해 58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유통해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주범 5명은 컴퓨터 190여

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사들여 한 뒤 이를 일반 게임이용자에게 다시 팔아 5~7%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머니인 ‘야엔 생산공장’이라고 불리는 불법작업장에서 자동 게임머니 생산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를 사들였으며 속속 대포통장 48개, 대포폰 50대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성화대 골프연습장 세금내려

광주지법, 취득세 부과 적법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진 성화대골프장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퀴즈]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지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십시오

7급 종합반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200만원	9급 종합반 합격률 90% 이상 수강료 150만원	법원사기보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소방직(전원)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평문/경력직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7급 경찰직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9급 이간반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농업직/기술직 합격률 95% 이상 수강료 100만원
--	--	---	---	--	--	--	---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고무인 합격서명회 영구권 비거르영회

합격률 20% 보장
수강료 200만원

11년 6월 22일(수) 14:3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 고교노트중점
중점반 교재 20만원 상당 무료제공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만 무료제공 10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평원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